

뉴스 & 뉴스

티베트불교 탄압중지 촉구

티베트인권위원회와 전국법사연... 티베트 불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중국 정부는 티베트 민중들을 억압하지 말고, 즉각 독립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곡성 천태암 복원 추진

경주 석굴암보다도 앞서 장려됐다는 전남 곡성군 천태암 석굴의 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종결 화엄사 주지, 명섭 태안사 주지 스님 등 곡성 출신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천태암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강정원)는 23일 오후부터 9억4천500여만원을 들여 불상을 조성하고 대웅전을 건립하는 등 천태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엄사 사지에 의하면 천태암은 경주 석굴암보다도 앞선 시기인 신라 문무왕 5년(665) 해암살사가 창건했으며 57년 화재로 건물 3채가 모두 불탔으나, 3년전 한 스님이 가건물을 세워 이곳에 머물고 있다. 권형진 기자

달성 도성암서 행화 도난

경북지역에 또다시 행화도난 사건이 발생해 이 지역 사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도성암(주지 승천)에 20일 밤 11시~21일 새벽 3시 사이 도둑이 들어 대웅전 후불탱화 한 점만 도난당했다. 19세기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후불탱화는 가로 200cm, 세로 150cm 크기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 운주스님인 대전스님은 낮부터 비가 내렸으며 바람이 많이 불어 대웅전 바로 옆에 스님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는데도 전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도난사건은 한번 발생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지역 사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 후기 학위수여

동국대(총장 송석구) 서울캠퍼스 9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5일 오전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의식에서는 박사 75명, 석사 421명, 학사 421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소설가 황석영씨가 30년만에 명예졸업장을, 가수 하춘화씨가 '한국가요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로 문학석사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주캠퍼스도 30일 오전 제2 소강당에서 석사 11명, 학사 174명에 대한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오종욱 기자

납골당 주택가 설치가능

건교부 '도시계획 시설기준 규칙' 개정

앞으로는 주택가에서도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의 사찰 납골당 확충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납골당·화장장, 자연녹지와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

의 설치 장소 제한을 삭제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무회의 의결안과 비교해 실질적으로는 아무 제한없이 이설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정각스님은 "사찰 납골당 건립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택가에서도 납골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을 꾀해야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대중불교 순회강연 재개

대원회, 5년만에...10월 10개 도시서

한국불교대원회는 지난 96년이후 중단됐던 대중불교 전국 순회강연을 오는 10월 재개한다. 교계 안팎의 유명인사들이 연사로 나서게 될 강연회는 서울, 진주, 제주, 인천, 제주지부를 비롯 예전에 지부가 조직됐다가 없어진 부산 포항 경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원회는 이번 강연회가 대중불교운동을 부활하는 동시에 지부조직을 재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98년 통권 185

호를 끝으로 휴간에 들어간(대중불교) 복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내년 3~4월 복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대원회는 9월3일 불교문화진흥재단 구축의 일환으로 도서시설을 개관했다. 대원불교회관 1층에 위치한 도서실에는 불교사전, 경전, 신학지침서, 교리서, 불교소설 등 1만여권의 불교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도서실은 대원정사의 전액 출연으로 이뤄졌다. 도필선 기자

통일미래 준비

대화마당 연다

좋은벗들, 정토회관서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9월 1일부터 12월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서초동 정토회관 3층에서 '다시 보는 북한사회·북한사람'을 주제로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을 펼친다.

이번 대화마당은 특강 김정일을 통해 보는 북한사회(9월1일), 통일정책연구소 손광주를 비롯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원리, 북한사람들이 사는 모습·사회·경제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11월 24일 심포지엄 '다시 보는 북한사회·북한사람', 12월15일 북한문화의 이해를 위한 특별공연, 12월22일 대담 '북한사람의 남한사회 삶'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02)587-8996 김재경 기자

실험형령 피의자 기소

70억' 아닌 '172억' 형량

서울지검 형사3부(담담검사 최해중)는 24일 조계종 실험 공금형령 사건과 관련 송석운·조택동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실험과장 송석운씨는 99년 7월부터 31차례에 걸쳐 실험예치금 중 108억1천3백만원에 형령, 주식매입과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조씨 두 사람은 64억원을 불법인출해 구권과 폐 교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던 70억여원보다 100여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23일 '조계사 실험형령사건에 대한 전국신도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명우 기자



비전향장기수와 스님, 수원포교당 어린이합창단원이 부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장기수 송환 남북화해 단초"

장기수후원회 통일음악회

불교장기수후원회(상임대표 성관)와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그리운 산하, 아 통일여'를 주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축하 문화제인 통일음악회를 22일 수원 포교당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 실천승가회 부의장 도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법안스님과 40명의 비전향장기수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통일음악회는 비전향장기수 관련 다큐멘터리(푸른

영상 제작) 상영, 성관스님 송사, 어린이합창단 공연 및 축시 낭독, 장사익씨 및 사물레 공연, 비전향장기수인 우용각씨 답사 등으로 진행했다.

성관스님은 송사에서 "9월2일 비전향장기수의 북한송환은 남북의 새로운 화해와 협력, 자유로운 왕래의 길을 열어가는데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부디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기회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재경 기자



옥련암이 운영중인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18개 학교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문화재 보존활동, 시설재 방문 등의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옥련암은 청소년도량

20년동안 1천여 청소년봉사 양성 동아리방 운영-역사탐방등 인기 조계종 전법도량 시범사찰 지정

21년간 지역사회 청소년포교에 주력하고 있는 아산 옥련암(주지 종인)이 22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전법도량 시범사찰로 지정됐다. 포교원은 이날 옥련암에 전법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옥련암은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가 전부인 소규모 암자임에도 불구하고 81년 교계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초·중·고·대학 불교학생회를 조직하여 청소년특성에 맞는 문화법회 등을 실시, 그동안 1천여명의 청소년봉사를 배출했다. 이들 봉사자들은 현재 학생회 법회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교사, 그리고 지역불교를 육성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97년 (사)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을 설립하여 문화강좌, 수련, 놀이, 봉사 등의 25개 프

로그래를 운영하며 일반 청소년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시에 온양시장 새마을금고빌딩 2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청소년육성개발원은 매년 8천여명이 이용하는 1백석 규모의 청소년 무료공부방, 다도 인성강좌 등 7개 프로그램을 매일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실, 노래방, 영화관 바둑방 등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서예 만화 등 18개 동아리방 등을 갖추고 있다. 옥련암의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에는 매년 1만여명이 참가하는 등 호응이 높고 있다.

특히 옥련암의 청소년 역사탐방과 수련회 등은 봉사 및 일반 청소년들의 호응이 높아 아산시에 대표적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청소년들의 참여에 따라 지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포교

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어린이 포교에도 관심을 가져 전교조 아산지부와 합심으로 어린이날 개최하는 '아산 어린이 큰잔치'에는 주민과 어린이 5천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옥련암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신도 중심의 투명한 사회운영, 신도회는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찰의 재정과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청소년 포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옥련암은 내년부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포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아산시에 18개 학교를 찾아 이동 청소년문화공연과 생활법문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마련중이다. 최근 아산시청이 지원한 500만원의 지원금으로 35명의 이동무대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지 종인스님은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 봉사자들이 사회를 이끄는 청·중년 봉사들로 자라가게 청소년포교는 미래불교를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중·곤충류 1813종이 서식하는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댐을 만들 경우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탐사팀이 휴천면 송선리 일대에서만도 60종의 야생화(화본류)와 80종의 나무(목본류), 60종의 곤충류, 10종의 어류, 30종의 조류를 발견할 정도로 문정법 예정지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에서 지리산탐 건설계획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두레생태기행 탐사팀은 울릉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 등 천연기념물과 나무발발이·삿갓치레도동충 등 세계적 희귀동물들을 비롯 식물 824종·포유류 39종·조류 89종·양서류 9종·파충류 11종·어류 21

"지리산 희귀 동식물 서식 생태보고"

두레생태기행 '보고서'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서울시 녹색위원회)은 지난 7월 16~17일 지리산 함양 문정법 건설 예정지에서 실시한 생태탐사의 보고서를 23일 발표하고, "환경관련 연구위원들의 지리산탐 건설 예정지 현장답사 결과 자연생태·역사문화·지역정서적 측면

에서 지리산탐 건설계획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두레생태기행 탐사팀은 울릉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 등 천연기념물과 나무발발이·삿갓치레도동충 등 세계적 희귀동물들을 비롯 식물 824종·포유류 39종·조류 89종·양서류 9종·파충류 11종·어류 21

Advertisement for 'Dalma-do' (달마도)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Ji-jang-seon-won' (지장선원 포교원).

Advertisement for 'LIHIS' (LIHIS) health products, including 'LIHIS 건강 지압 양말' and 'LIHIS 건강 숲 양말'. Features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jang-seon-won' (지장선원 포교원).

Advertisement for '12 items of Falgamsamju' (12품 팔상탐주) and 'The Power of the Secret' (영가 천도의 중요성). Includes a list of 12 items and a list of 12 questions related to the 'secret'.

Advertisement for 'The Importance of the Secret' (영가 천도의 중요성) by Heon-beom-ba (혜천법사). Includes a list of 12 questions related to the 'secre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n-ji-gwan-eum-hui' (성지관음회).